



3면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4차 추경은 추후 판단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음 6월 24일) 제259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수마 활취고 간 전복... 수해복구 '한마음'

### 정치권·공무원·군인·봉사자 일손돕기 총출동 송 지사 "특별재난지역 확대, 피해지원 현실화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시름에 잠긴 남원과 순창 등지의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정치권부터 자원봉사자, 군인 등 각계각층이 한달음에 복구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전북도는 공무원 현원의 1/3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는 등 사실상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했으며 송 지사도 복구현장 곳곳을 찾아 피해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했다.

12일 전북도 본청 소속 공무원 350여 명은 남원시 송동면 금지면 노암동 등 3개 지역의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논밭과 축사, 집안 정리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남원시 송동면 일원은 지난 7~8일 4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주택 52가구를 비롯해 농가와 하우스 등 100ha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다. 공무원들은 농작물 피해 현장과 흩날려오던 오염된 가재도구 정리 등 일손이 달려 막막했던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도 공무원들은 수해복구 일손 돕기를 위해 작업 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마련 피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실국별로 유관기

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시군 피해 농가 돕기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여야 정치권도 도내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며 피해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등 50여 명은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일대 수해현장으로 총출동해 복구 활동에 나섰다.

정운천 의원 등 미래통합당 예결위 원들도 남원시 금지면을 찾아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전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50여 명도 이날 순창군 유등면 일대에서 농작물과 하우스 등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35사단 장병 660 여명, 7공수 여단 180 여명 등 군인들도 남원과 순창, 무주, 전주 등에서 복구활동에 발 벗고 나서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세탁 차량 급식 차량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피해 주민 돕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12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마을을 방문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및 당원들에게 송 지사가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있는 송지사 도지사는 "집중호우로 낙담이 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는 당장의 피해복구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수해 피해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고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피해가 확인되는 지역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전국을 놓고 호우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총력

### 긴급자금기업당 10억 한도

전북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조,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게끔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용자를 받을 수 있고 금리는 1.9%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이로 인해 시설물 등 피해 복구가 어려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 피해 기업은 남원 4개, 순창 5개 업체 등 총 17개 업체로 대부분 공장침수, 토사유입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재해기업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자금 지원을 안내하고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로 자선)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일자리 잃은 도내 청년들 재기 돕는다

### 전북도, 1000명에 50만원씩 3개월 생생지원금 등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생지원금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8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여파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도와 시군은 37억원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 1000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대상자 모집에 총 1,386 명이 신청했으며 근무기

간, 실직요건,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1,000명을 확정했다.

1차 선발자는 지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차로 선발된 대상자는 이번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시군 지역 상품권(전주시는 선불카드)으로 지급해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태게 된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만18~39세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직 청년의 신규 고용추진을 위한 사업이다. 도내 282개 사업장에서 신규로 314명의 실직 청년을 채용했으며 선정된 청년사업장당 월 200만원씩(자부담 20%) 최대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이 생생지원금과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조기에 생활 안정이 되어 사회진입 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섬진강 6개 시군 '수재민 아픔 정쟁도구 악용말라'

섬진강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입은 호남 6개지역 단체장은 12일 '댐 관리 부실로 섬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치인들은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지역의 아픔을 더이상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 남원시장·임실군수·순창군수, 전남 광안시장·곡성군수·구례군수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 기관이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선제적 방류는 커녕 담수만 고집하고 있다"고 발생한 인재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의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월 오전에서야 댐의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물이 긴급 방류됐다"며 "이로 인해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집터는 거센 물살에 찢겨 이수라장이 됐고 물에 잠긴 논밭은 황폐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6개 단체장들은 "섬진강 하류지역의 아픔을 미래통합당과 무소속의 몇몇 정치인들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창=이양원기자



군산시 GUNSAN CITY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